

# 오, wonderful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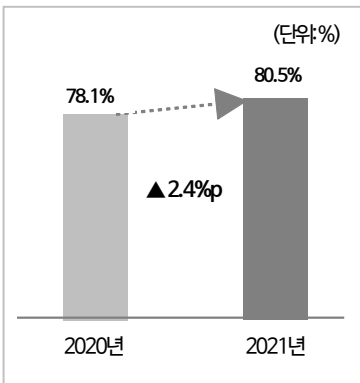
불과 2015년경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그러나 2020년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고, 코로나 사태 후 K-방역에 대한 외신들의 호평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이 많이 올랐다.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지난해 분단국가를 넘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대한민국의 호감도 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외국인 80%, 한국 긍정적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표한 ‘2021 국가 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는 긍정 평가가 80.5%로 전년보다 2.4%p 상승했다.

한국 이미지에 대해 긍정 평가 요인으로

한국 국가 이미지 ‘긍정평가’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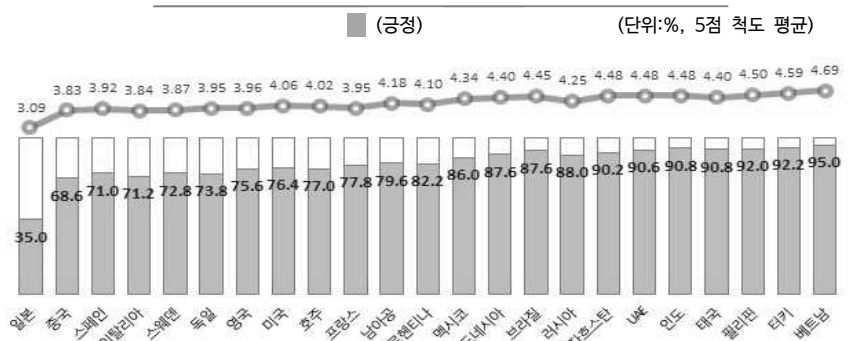


는 K-pop, 영화 등의 ‘문화적 요인’이 22.9%로 가장 많다. 2위로는 한국산 제품 및 브랜드, 3위는 국민소득과 경제 수준이었다. 그러나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제품 및 브랜드’ ‘국민소득과 경제 수준’을 합치면 23.4%로 1위가 된다. 결국 ‘제품 및 브랜드’ ‘국민소득과 경제 수준’이 23.4%로 1위가 되고 k-pop과 영화, 드라마 등은 22.9%로 2위가 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95%), 터키(92.2%), 필리핀(92%), 태국(90.8%) 등 7개 국가에서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신흥

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에 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체험 희망’(83.4%)이었고 ‘한국 방문 희망’(81.1%), ‘한국인과 친구 희망’(76.6%)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어(한글)학습 희망’(54.5%)이 2020년보다 8.7%p 대폭 상승했고 ‘한류 콘텐츠 접촉 경험’은 6.7%p, ‘한국 방문 희망’은 6.5%p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긍정 평가’ 비율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선진국 일본,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50여 년 만에 최장기 약세 행진을 이어갔다. 엔화는 2008년 금융위기, 브렉시트 등 경제위기 때마다 가치가 오르며 미국 달러화에 버금가는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예전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엔화의 위기는 곧 일본 경제위기를 의미한다.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 경제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를 두고 ‘잘라파고스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Japan)과 갈라파고스(Galapagos)의 합성어로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남미 대륙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갈라파고스 섬처럼 일본은 섬나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어느 순간 외부 변화에는 벽을 쌓은 채 세계 트렌드와는 동떨어지며 고립돼있는 것을 비유한 단어다.

전 세계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전기차 시장에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전환 계획을 공개했지만, 충전 출력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력이 낮을수록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혁신 속도는 계속 뒤쳐지고 있고,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5위에 오른 한국보다 7계단 밀린 12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지금도 현금 사용 비율이 50%에 가깝다. 코로나

가 대유행한 시기에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현금 사용이 빈번한 것이다. 한국이나 중국 등이 QR코드, 모바일페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동안 뒷걸음만 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창궐 6개월 동안 확진자 집계를 팩스로 하면서 확진자 집계가 늦어지자 아날로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본 경제의 퇴보는 직장인들의 임금에서 체감된다. 30년간 직장인들의 임금이 고작 4.4% 올랐다고 한다. 평균 임금 수준은 OECD 회원 35개국 중 18위이다. 2019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인 평균 임금은 구매력 평가를 사용한 달러 환산 기준 3만8,617달러로 한국의 4만2,285달러보다 뒤쳐졌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일본 소비자들은 물건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소비를 늦추고, 이런 소비 지연은 기업의 매출을 깎아내린다. 그러면 기업은 임금을 올리지 않는다. 급여가 제자리면 직장인들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 일본은 이런 디플레이션 늪에 거의 30년째 빠져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30위를 차지했다. 97년 이후 최악의 순위이다. 1987, 88년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TOP10 중 8개 기업이 포진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 최대 완성차 기업 도요타가 30위권에 머물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사라졌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전자(전 세계 시총 16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순위이다.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81)는 10여년 뒤면 일본 대신 한국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단위:달러)

순위	국가	1인당 GDP
1	룩셈부르크	118,726
2	아일랜드	95,513
3	스위스	71,705
4	노르웨이	63,293
5	미국*	63,285
...		
12	독일*	54,316
15	캐나다*	48,091
16	프랑스*	46,422
17	영국*	45,944
	OECD평균	44,986
19	한국	43,319
22	이탈리아*	41,964
23	일본*	41,775

# 당신에게 가을은 어떻습니까

습하고, 끈끈한 한여름은 태풍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몰아치는 바람은 분명 시원함을 머금은 북서풍의 풍향은 여름의 그것은 아닙니다. 10월은 누구에게든지 한숨을 돌리며,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일 것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고추잡자리가 평화롭게 나는 가을은 참 평화로움을 안겨줍니다. 어머니의 품이 바로 이런 것처럼 다가옵니다. 한여름의 피곤과 지침의 날을 가을 땀이 닦아 줍니다. 살포시 찾아온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단풍과 은백색의 억새의 흔들림은 무딘 감성의 사람에게도 심장을 흔들여 놓습니다. 태풍과 모진 태양의 기운을 견디고, 그 빗줄을 가득 담은 가을 열매는 마음조차 풍요롭게 합니다. 하늘은 청아합니다. 에메랄드 보석처럼 펼쳐진 캔버스에 새털구름으로 뿌려진 하늘은 그 자체를 보는 것으로도 '힐링'입니다. 흔들거리는 억새 풀을 보며 아메리카노 내음을 맡으며 관조하는 그 즐거움은 아름다운 가을이 주는 싹표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의 아름다움을 누가 '찬란한 슬픔'이라고 표현했던가요. 그런데 내가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번성하다 못한 풍성한 나뭇잎이 조락해 가는 계절에 나는 종말을 느낄 수 있기에 좋습니다. 표현하기 힘든 신비스러운 우수가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는 유한에서 무한의 음성을 듣게 하는 조물주의 음색이 있습니다. 가을의 그 화려함은 조락간에 무채색으로 시들어 떨어

어져 밝히는 낙엽이 됩니다. 떨어진 잎사귀에서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을이 몰고 올 삭풍이 휘몰아치는 엄동설한의 겨울이 오는 선발대임을 알게 됩니다. 뒤따라오는 삭풍의 겨울은 모든 것을 삼켜 버립니다. 지평의 어느 것도 두 팔을 벌리지 못하게 합니다. 푸른색 침엽수만 온몸을 오그리고 생존의 몸부림을 볼 뿐입니다. 결국, 노란 가을의 색은 빨간 인생 종착역의 신호등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계절보다 가을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로 가득한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코스모스 꽃이 만발하여 하늘하늘 반기는 고갯길을 따라 걷노라면 지난날 넘나들던 삶의 애환이 어우러져 문득 자신의 자화상을 보게 합니다. 코로나 쇼크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고, 강제적 혼자만의 시간을 강요했습니다.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 밝은 일상의 삶이 오리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땅에도 여전히 가을의 종소리는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소리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거민들은 세상사로 시끄럽고 심지어 혼란의 노락질이 있었을지라도 가을의 땅과 하늘은 의연합니다.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명분 없는 탐욕의 전쟁으로 파괴의 파편이 지축을 흔들며 수많은 젊은 생명을 앗아감에도 가을 손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욕망의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 없이 밟아, 위험한 질주를 하는 인생들을 향해 가을은

말합니다. 곧 인생의 겨울이 앞에 있다고 가을은 노란색에서 빨강 신호등으로 바뀌기 전 같기도 합니다. 가을이 발산하는 애정 깊은 메시지를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유한한 인생이 유한 만을 보고 그 이후를 보는 눈이 열린다면 당신은 가을의 찬가를 부를 이 유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청년들이 가을이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묘지를 밝히기 위해 관솔불을 켤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술을 주신 박카스 신을 위하여 마시고 또 마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는 세월이 아쉬워 오늘의 한잔으로 그 속에 묻히고 싶은 것이 풍류로 아는 사람에게 가을은 더 무서운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 마지막 준비를 하라. 이 '슬픈 화려함'은 곧 대지를 황량한 무채색의 별판으로 만드나니, 대비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잠시 멈추고 오늘 어디로 가시지를 생각해봐라. 영원을 준비하라. 그리고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의 성공지키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http://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 세계 속의 한국 'K-신드롬' 글로벌 트렌드 리드하다

K-팝, K-방역, K-푸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고 있다. 겉두사 'K'는 어느덧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최고 수준을 의미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세계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대한민국의 여러 산업 분야 및 문화적 카테고리 앞에 이제 'K'란 말을 붙이는 데 주저함이 없다.

## 전 세계로 수출되는 K-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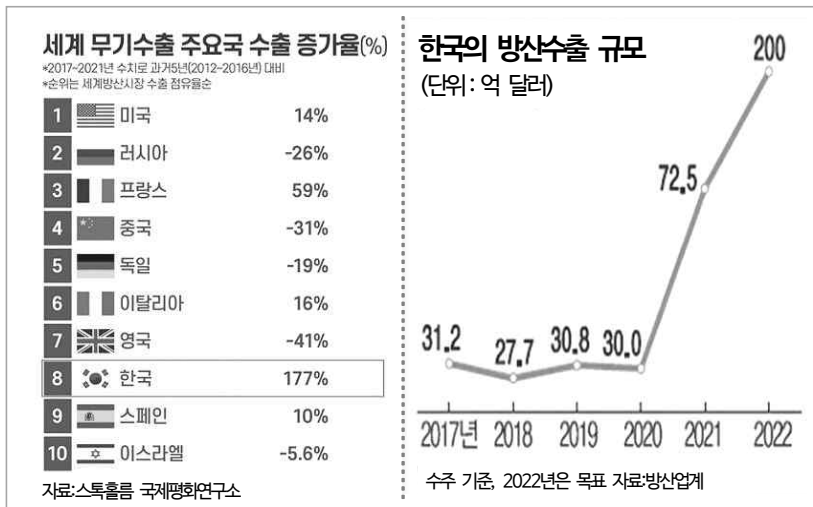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5년 풍산이 M1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팔면서 무기수출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47년이 흘렀다. 2022년 1월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UAE)와 35억 달러(약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2월엔 한화디펜스가 2조 원 넘는 규모의 K9 자주포를 이집트에 판매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사상 최대인 약 20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을 성사시켰다. 한국 방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막대한 국방 예산과 그것이 가져다준 국방력이 바탕이 됐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54조6112억 원이다. 2000년(14조4774억 원)과 비교하면 22년 새 40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세계적으로 봐도 10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액수가 크다.

군사력 순위는 더 높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세계군사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기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온 2005년 당시 14위에 비해 무려 8계단 뛰어오른 순위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 K-콘텐츠의 힘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콘텐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



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9월 17일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공개된 날이다. '오징어 게임'은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배우조합(SAG)상을 받고,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의 남우주연상(이정재)과 감독상(황동혁)을 수상하였다.

## K-스마트팜..UAE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 짓다

중동 사막에 한국형 스마트팜이 들어선다. 물 소비량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담긴 시설이다. 이 스마트팜에는 한국형 냉방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포그냉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안개를 응용한 것이다.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시설 내 온도를 작물 이 자라

는 데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물이 부족한 UAE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적어 농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네덜란드는 물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스마트팜을 개발했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다. 그러나 K스마트팜은 높은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해외로 나가는 K-스마트시티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생활에 접목한 도시인 스마트시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활발하게 누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스마트시티 관련 ICT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현대건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하남성 내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해당 지역 스마트시티 조성에 참여해 연구개발(R&D)센터, 오피스, 상업시설, 스마트 물류센터 등으로 구성된 '하이테크 산업지구'와 주거·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이 들어서는 '도심지구' 등 총면적 1524ha에 이르는 대규모 복합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모빌리티·로봇·플랫폼 등 그룹과 연계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해외 석학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예언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15~17세기까지 3백 년은 스페인, 로마, 포르투갈 등 지중해 국가들이 세계를 주도해온 이른바 지중해 권 시대였다. 18~20세기 3백 년은 영국 미국이 중심을 이루는 대서양권 시대가 됐으나 다가오는 21세기 세계는 일본과 중국,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중심 국가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다.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블룸버그가 뽑은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쉐커'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 첨단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파이를 차지하고 첨단 기술을 주도할 누군가가 필요한 데 한국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 3대 투자가 짐 로저스는 한국이 향후 20년 내에 가장 흥미로운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국은 남한만이 아닌, 북한과의 통일 이후에 가지게 될 한국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앨빈 토플러와 더불어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짐 데이터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미래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화 사회 다음 단계로 꿈과 상상이 지배하는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가 될 것인데 한국이 미래 '꿈의 사회'를 이끌 것이라 믿고 전세계 문화의 큰 흐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는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 '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는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 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 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 여론조사, 도대체 뭐가 문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도 매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여론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가 많았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 여론조사의 영향력

1990년대 중반, 정치에서 대규모 군중 동원 유세가 사라지면서 여론조사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자주 활용된 것도 이때부터다. 여론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일반 국민의 뜻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 국민의 의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정치과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접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각 국민에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 형성과정에서의 기여도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 그간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을 오도하거나 심지어 조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여론조사는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밴드왜건효과’(유권자들이 선거의 시류에 편승해 표를 주는 현상)나 ‘언더독 효과’(패자에게 표 던지기,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처지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현상)가 대표적이다.

##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로 행해지므로 표본조사에는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표본오차(sampling error)가 수반된다. 표본오차는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대신에 표본을 조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가피한 통계적 오차로, 이는 오차범위로 명시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기획하거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표본오차가 발생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비표본오차가 표본오차를 능가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비표본오차의 유형으로는, ① 표본추출방식이나 조사방식에서 오는 차이 ② 질문지 작성의 편향성 ③ 표본의 대표성 미흡 혹은 무응답 무시에서 오는 차이 ④ 조사단위의 누락이나 조사원의 부족한 자질과 정치적 편향성 등이다.

대표적인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컴퓨터로 전화번호부에서 임의번호결기(RDD)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과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

RDD란 ‘Random Digit Dialing’의 약자로 기계가 생성하는 무작위 번호로 전화 거는 방식을 의미한다. 가상번호(일명 안심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휴대전화 번호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부여한 일회성 번호를 말한다.

조사방식으로는 전화면접조사가 있고 전화 자동응답조사(ARS)가 있다. 전화면접은 면접원이 조사 대상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조사를 진행한다.

면접원이 조금만 시간을 내서 협조해달라는 말에 거절하고 끊는 분도 있겠지만 간곡히 부탁하면 매정하게 전화를 끊기란 쉽지 않다. 조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면접원에게 미안해서 끝까지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응답률은 ARS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면접원에게 직접 대답을 하다 보니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진짜 속마음을 밝히기 꺼리는 경향도 있다.

ARS는 기계음을 듣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조사 대상자들이 전화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응답률도 낮다. 이처럼 쉽게 끊을 수 있는 ARS 조사를 끝까지 참여했다면 해당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 정치에 관심이 높은 대상자들이 끝까지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투표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기계음을 듣고 버튼을 누르다 보니 ‘내가 무슨 답변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에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편이다.

대체로 ARS 조사에서는 보수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전화면접은 진보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사에서 조사방식을 알고 보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무선전화는 젊은 층의 응답률이 높고 유선전화는 가정주부나 장년층의 응답률이 높다. 이러한 표본추출방식과 조사방식의 차이가 지지율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A사는 조사 대상의 90%를 ARS로, 10%를 전화면접으로 한다. ARS는 기계 녹음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거짓으로 답변하더라도 가려내기 힘들다. 반면 조사원이 직접 질문하는 전화면접보다 솔직하게 답을 끌어내 ‘사이충’의 민심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B사의 여론조사는 100% 전화면접으로 이뤄진다. 전화 면접조사는 ARS 조사보다 높은 응답률을 가진다. A조사의 응답률은 6.5%였지만 B조사의 응답률은 13.3%였다. 여론조사 업계에는 여러 통설이 있다. ‘유선전화는 보수 정당, 무선전화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노인층이 많이 받는 낮에는 보수, 젊은 층이 많이

응답하는 밤에는 진보에 유리하다’ ‘ARS는 여성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 많이 받는다’ ‘응답자 중 여당 지지자의 응답률이 훨씬 높다’ 등이다.

## 여론조사 결과와 민심이 다른 이유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는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 결과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전은 인종차별과 여성혐오, 다양성과 진보라는 관점에서 치러졌으므로 결론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트럼프가 승리하였다. 2012년 대선 때에도 껄껄을 포함한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은 롬니 공화당 후보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보기 좋게 빗나갔다. 미국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의 격전지 여론조사도 대부분 실제 결과와 매우 달랐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새로운 소통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공공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진보 대 보수의 대결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 양쪽 진영 모두 기술과 전략에 있어 새롭게 다가간다. 이미 카카오톡 사용자는 4천8백만이 넘어섰고, 국내 사용자만 3860만 명이 넘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메신저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냐로 정치적 진영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각자의 연결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이 연결되고 있다.

다음은 온라인을 통해 평가되는 대세감의 착시 효과이다. SNS는 지극히 관심 네트워크 기반의 연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후보들이 박빙으로 접전이 붙었을 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논제가 주요 정당에 의해서 주도되기보다는 시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온라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수가 기존 미디어가 가진 힘의 입체치를 벗어나면서 ‘많아지면 달라진다’를 실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기존의 정치가 새로운 구조에 압박을 당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정당이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이다. 정당지지도나 주요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에 무응답자가 과도하게 많다는 점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다.

#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자

빠르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후대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연금은 기본이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어떤 상품이 내 미래에 더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차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둘은 분명 다른 상품이다. 개인연금은 보통 ‘연금저축’이라 부른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 제한이 없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이다.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이란 말이 붙는 상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가 낮은 편이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 대신 10년 이상 납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하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가입자는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며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 ‘만 55세부터 20년간’ 식으로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 실적이 배당되니 수익이 달라진다. 납입도 자유적립식이다. 확정기간형, 정액형이 있다. 사적연금 가입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어느 것을 가입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제 혜택 시점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납입 시
세제 혜택 내용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없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세제 혜택 요건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 가능)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 원 이하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 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 종신형: 보험료 납입 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세제혜택 요건 미충족시	이자소득세 15.4% 발생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연금 수령 기간	만 45세 이후 연금개시(선택가능) 종신 보장	만 55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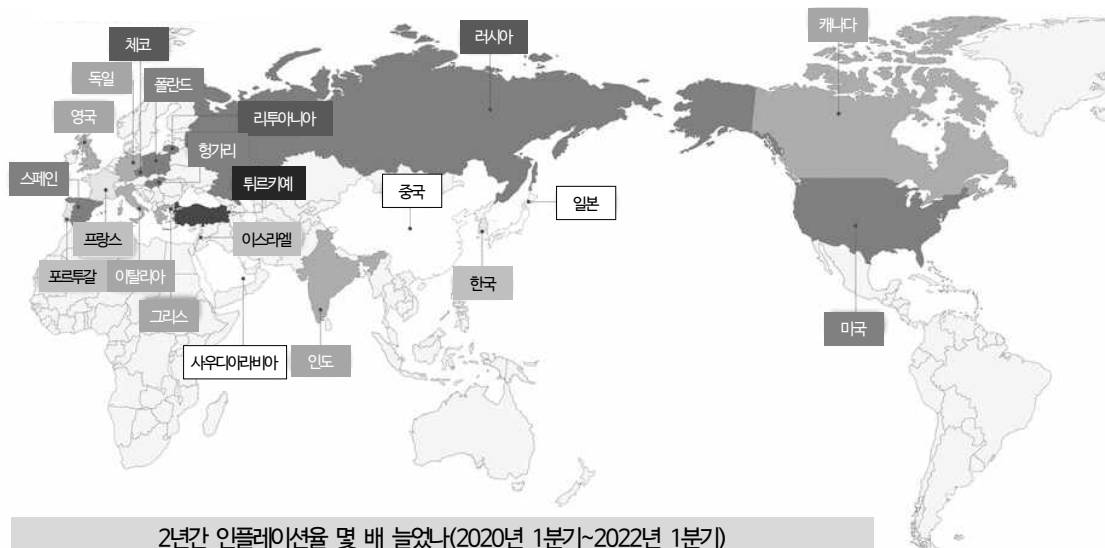
둘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란 점에선 비슷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다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IRP는 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까지다. 물론 두 유형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그럴 땐 세제 혜택을 연금저축에서 연 400만 원까지, IRP에서 나머지 한도인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 요건은 연금저축이 더 유연하다.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면 연금저축은 대체로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다. 다만 그럴 땐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IRP는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할 때 등이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특성으로 사회초년생은 공격적 투자를 선호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연금저축이 적합하며, 큰돈이 들어갈 시기가 지난 중장년층은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쌓아두기 좋은 IRP에 가입하는 게 낫다.

## 세계 44개국 인플레이션율

(2022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자료:프리시치센터



역대 최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지만 수 치나 양상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프리시치센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집계한 세계 44개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경험하는 각국의 혼비백산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2022년 1분기(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54.8%를 기록한 튀르키예(터키)였으며,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0년 1분기까지만 해도 0.13%였다. 그러나 2022년 1분기 3.36%로 2년 전보다 약 25배 올랐다. 피그스(PIGS)라고 부르는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이 이스라엘에 이어 지난 2년의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같은 통계에서 한국은 18위로 중위권이다. 2022년 1분기 인플레이션율도 전체 6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0.1~2.4%) 중국이나 일본의 바로 위인 5그룹(2.5~5.0%)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온 일본은 2%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 상승이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일본 국민의 소비를 더욱 옥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출처:이코노미 인사이트 그래픽뉴스〉



# 반려동물 시장, 펫코노미 잡아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과 서비스 출현으로 관련 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목을 끌고 있다.

## 반려동물시장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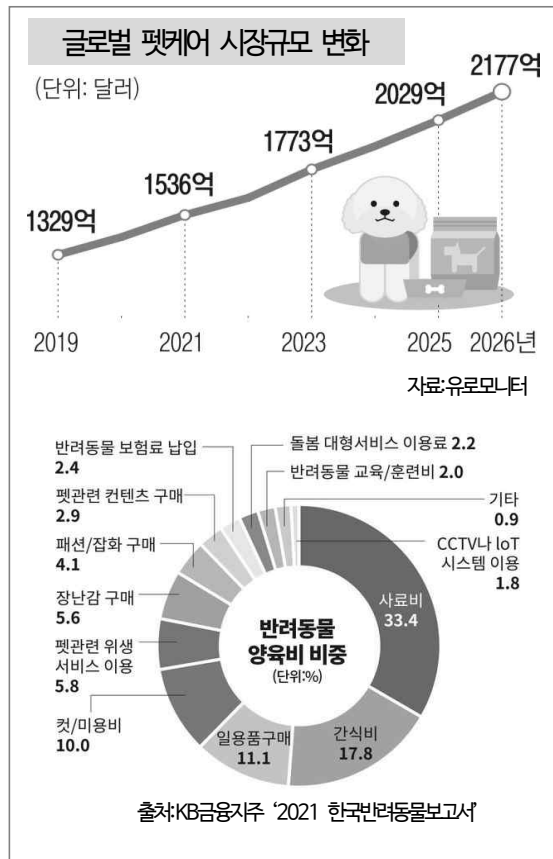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2007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한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삶을 같이하는 동반자의 의미로 위상이 크게 바뀌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세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변화에 따라 세계 펫케어 산업은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가족화를 의미하는 ‘펫 휴머니제이션’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반려동물의 웰빙을 목적으로 하는 펫테크 제품 보급의 확산, 사료의 고급화,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이 출현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인 혼펫족,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2인 가구인 딩펫족(DINK+pet),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됐다.

## 펫코노미 시장 성장세

2020년 기준 전 세계 펫케어 시장은 개와 고양이 사료 등의 펫푸드가 1021억 달러로 71.8%를 차지하고, 헬스케어용품, 장난감 등 펫 제품이 400억 달러로 28.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지주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월평균 총양육비는



14만 원, 양육비의 3분의 1을 사료 구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2년 동안 평균 47만 원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료 등의 펫푸드 시장은 단순한 건식 사료를 넘어 브랜드 제품이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건강식 사료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프리미엄화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 반려동물산업에 투자하기

반려동물 인구와 관련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에도 국내에 반려동물 관련 ETF는 없다. PAWZ ETF는 반려동물 소유와 관련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최초의 펀드이며 반려동물 사료 제조, 용품 제조, 반려동물 헬스케어, 동물 제품 유통산업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분산해서 투자한다. 2018년 11월 상장해 약 3년 9개월간 운용 중이다. 총자산은 1억 5248만 달러(약 2000억 원) 규모다. 미국의 비중이 69.4%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영국 15.5%, 스위스, 독일 등이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진단 관련 종목인 아이텍스 레보라토리스, 사료, 간식에서부터 의류, 장난감, 비타민 등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인 추이 등이 있다.

올해 들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가속화와 가처분 소득의 감소,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반려동물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반작용 등으로 인해 PAWZ ETF 또한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 펫테크가 접목된 장난감 등 다양한 업종의 반려동물 관련 기업들도 함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가짜뉴스로 월 수천만 원 수입...도 넘은 ‘국뽕 콘텐츠’

유튜브에서 이른바 ‘국뽕’ 콘텐츠들은 꽤 인기가 높다. 어떤 대형 채널은 70만 구독자를 자랑하고, 중간 정도 규모의 채널도 30만~50만 구독자는 된다. 국뽕이란, ‘국’가와 ‘히로’뽕의 합성 신조어로 국수주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자랑할만한 부분을 부각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극대화하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최근 과도한 애국심 고취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역사 왜곡과 허위 사실이 난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국어가 UN 공식 언어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많이 퍼지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올리면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국뽕 콘텐츠를 내세우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를 끌어오기 쉽고, 조회수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돈벌이를 위해 애국심을 짜내는 가짜

뉴스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것이다. 조회수가 광고 수입으로 직결되는 유튜브의 수익 구조로 영상 길이와 구독자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조회수와 댓글이 많을수록 수입이 높다. 국뽕 콘텐츠는 문화, 언어, 역사, 외교 등 분야도 다양하다.

최근 국뽕 유튜브버들이 대대적으로 다뤘던 소식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 토트넘의 방한이었다.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놀랐다”, “토트넘 선수가 한국 국적을 원하게 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과장되거나 조작된 뉴스였지만, 국내 시청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에는 충분했고, 해당 영상들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예측하는 업체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손흥민이 중국인이다’ ‘브라질 축구 스타가 한국 귀화를 원한다’ 등 가짜뉴스를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채널의 월 수익은 1031만 원(예상치)에 달한다. 영상 1개당 제휴 수익도 200~300만 원

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기대 수익은 오를 전망이다. 가짜뉴스 게시를 중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른 국뽕 유튜브 채널들도 수천만 원의 월 수익이 예상된다. 유튜브에서는 가짜뉴스로 돈을 벌어도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유튜브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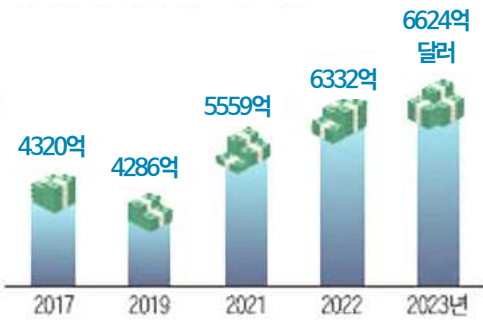
유튜브는 ‘노란딱지’(차단) 제도와 스팸 및 현혹 행위 제재에 따라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상 게시 후 검토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가짜뉴스 영상을 빠르게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3시간 50분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폐해가 크다.

유튜브의 가짜뉴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빠지지 않도록 국제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정보는 일단 거르고 봐야 한다.

# 반도체 업계는 ‘인재 전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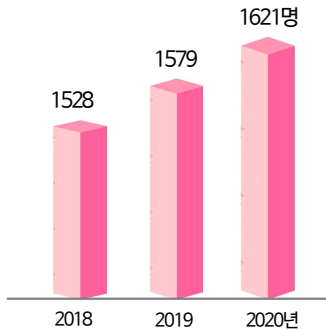
반도체 인력난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반도체 인력 규모는 3만 명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반도체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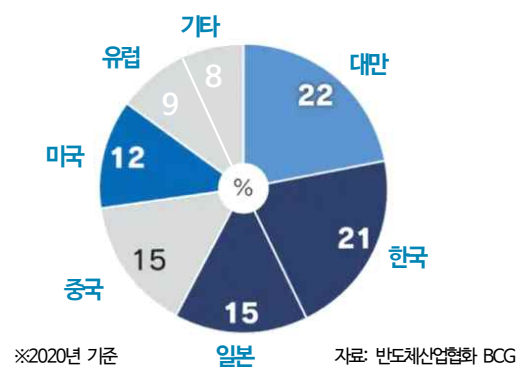
※2021년은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 집계  
2022년 이후는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 전망치  
자료: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

국내 반도체 인력 부족 심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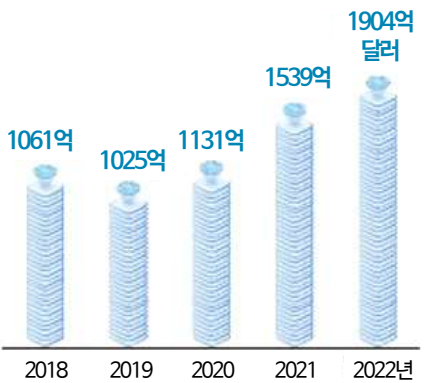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2020년 기준

자료: 반도체산업협회 BCG

투자 늘리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자본 지출규모 기준, 2022년은 전망치  
자료: 스탯ISTA

반도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미국



※반도체산업을 포괄하는 컴퓨터 전자제품산업근로자수 기준  
※2021년 11월은 잠정치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에이트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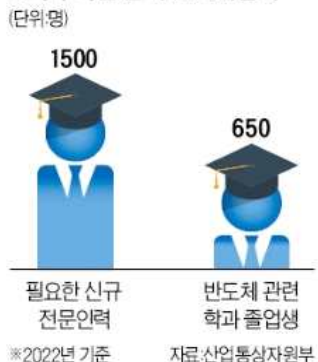
글로벌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는 각국의 노력

한국	2022년 7월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 육성 정책 발표 8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에 570억원 투자 등 반도체 인력 양성 내 년 예산 4500억원 투입
미국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 527억 달러 규모 반도체 산업육성법 서 명. 연구개발과 인력확보에 132억 달러 투입
대만	2021년 12월 대만대 등 4개 국립대에 반도체 대학원 설립 추진
일본	2022년 3월 규슈 반도체 인재육성 컨소시엄 설립 4월 구마모토(TSMC의 신공장이 가동될 예정) 대학원에 반도체 연구 교육센터 설립 6월 배터리,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전국에 인재육성 조직 설치 계획 발표
중국	2021년 4월 전공자 양성 학과를 최상위 1급 학과로 격상 2022년 4월 26년만의 직업교육법 개정 8월 집적회로 산업 인재 직무능력 요구사항 표준 추진
영국	2022년 5월 과학·엔지니어 등 세계 상위 50위권 대학 졸업한 해외 인재 대상 ‘우수인재’ 비자 도입
EU	2022년 2월 430억 유로 투자하는 ‘반도체법안’ 발표, 숙련된 인재 양성 위한 기관 유럽 여러 곳에 설립

계약학과 신설 경쟁하는 반도체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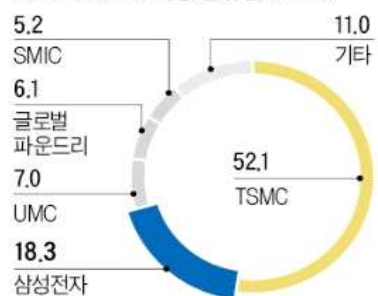


인력 부족한 한국 반도체업계



※2022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단위: %)



※2021년 4분기 기준  
자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반도체 인력 늘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삼성전자	4만9106	5만2095	5만4580	5만9270	6만3902
SK하이닉스	2만3412	2만5972	2만8224	2만9008	3만135
합계	7만2518	7만8067	8만2804	8만8278	9만4037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단위명

# 물리학자들에게 아직도 미스터리인 중력

##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가?

중력은 우리에게 작용하는 가장 친숙한 힘이며, 또한 가장 미스터리한 힘 중 하나이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이지만, 가장 긴 거리를 갖고 작용한다. 중력은 지구의 대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지만,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약해서, 몇 피트 위로 점프할 수 있다. 중력은 지구를 태양의 공전궤도에 고정하고, 심지어 멀리 있는 명왕성뿐만 아니라, 혜성들과 훨씬 더 멀리 있는 카이퍼벨트 천체들(KBOs)도 궤도에 고정시키고 있다. 명왕성의 무게는  $1.303 \times 10^{22} \text{kg}$ 이고, 태양으로부터 59억1천만 km 떨어져 있으며, 태양 주위를 초속 4743km로 돌고 있지만, 명왕성은 궤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중력의 세기는 물체가 서로를 향해 가속되는 것에 의해서 측정된다.

지구에서 중력은  $9.807 \text{m/s}^2$ 이다. 양자물리학이 받아들이고 있는 네 가지 기본 힘은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이다. 이 힘들은 모두 거리를 두고 작용하는 힘이다. 이 힘들은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접촉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작용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거나 당기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의 가장 좋은 예로는 중력뿐만 아니라, 전자기력도 있다.

## 만유인력의 법칙

우주의 모든 질량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더 커진다. 그 무엇도 중력을 막을 수 없다. 만약 사람과 지구 사이에 두꺼운 납 보호막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력의 힘을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지구 사이에 진공상태의 거대한 용기를 놓아둔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력의 힘을 느낄 것이다. 중력은 두꺼운 납이나 진공상태를 마치 그곳에 없는 것처럼 통과한다.

이 모든 것은 아이작 뉴턴 이후로 잘 알려져 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이야기를 갖지 않고 있다. Science Alert(2022. 5. 23)의 기사 보울러에 따르면,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전에 기각됐던 중력 대체 이론을 되살렸다. 우리로부터 약 2억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초확산 왜소은하 AGC 114905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보울러는 암흑물질인 나선은하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일반적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암흑물질만으로는 초확산 왜소은하 AGC 114905의

회전곡선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우주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른 이론들, 즉 수정뉴턴역학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이 가설(수정뉴턴역학)은 1983년 물리학자인 모르더하이 밀그롬에 의해 처음 발표된 것으로, 만약 우리가 뉴턴의 법칙이 제시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은하 바깥 영역에서 별들이 경험하는 중력을 계산한다면, 우주의 중력 격차를 매우기 위해 암흑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암흑물질 이론이 모든 은하 운동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일부 초확산 은하의 거의 전적으로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은하들은 암흑물질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2022년 5월 왕립천문학회 월간 고시에 게재된 만세라 등의 논문은 암흑물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통상적인 중입자 물질은 다음과 같다 :

강력한 3D 키네마틱 모델링 피팅 기법으로 복구된, 우리의 키네마틱 매개 변수는 회전 곡선의 평탄한 부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회전 곡선은 거의 전적으로 중입자 질량 분포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의 초확산 은하의 관측된 회전 속도 프로파일은 관측된 가장 바깥쪽 반지름 안에 암흑물질의 작은 방을 가진, 중입자만으로 거의 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의 회전을 평가한 후, 그들의 결론을 내렸다 :

은하들의 회전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느린 속도는 그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암흑물질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하의 회전 곡선이 수정뉴턴역학에도 큰 의문을 던진다. 그것은 어느 가설과도 맞지 않는다. ... 이 은하의 매우 낮은 회전 속도는 수정뉴턴역학과 암흑물질의 표준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정뉴턴역학인가, 아니면 암흑물질인가? 해결책은 은하 자체의 경사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포함할 수 있다.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를 연구할 때, 물체의 기울기 각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원래 연구팀은 AGC 114905가 타원형으로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가 각도를 갖고 은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제 은하가 우리를 똑바로 향하여 있을 때도 타원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은하의 각도가 바뀌면 은하의 회전 속도도 바뀌게 되는데, 이는 수정뉴턴역학의 계산이 여전히 맞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약

우리는 어떻게 네 개의 힘이 우주를 함께 붙들고 있는지와 같은, 우주에 대해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 우주론자들은 궁극적으로 AGC 114905와 다른 초확산 은하들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아인슈타인이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것을 풀 수 없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주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력과 같은 기본적인 힘조차 여전히 신비롭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로새서 1:15-17)

## 성경적 관점

물리학자인 램버트 돌핀은 위의 골로새서 구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에서 핵심 단어 중 하나가 그리스어 ‘수니스테미(sunistemi)’이며, 이는 서로 결합한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

이 구절은 예를 들어 원자의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원자의 핵은 물리학자들이 “약한 핵력” 그리고 “강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힘에 의해 결합되어 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자연계의 네 가지 기본적인 힘에 익숙하다: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처음 두 힘은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나중 두 힘은 매우 짧은 범위에 서만 작용한다].

원자의 핵은 (양전하를 띤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하고 있다. 양성자 사이의 상호 정전기적 반발은 핵을 서로 결합시키는 “강한 핵력”이 없다면, 핵을 분열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주에는 매초, 매일, 매년, 매 세기에 걸쳐 물질세계의 원자들을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능동적인 힘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핵을 도는 가속된 전자들은 이를 상쇄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에너지를 빠르게 방출하여 핵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이 가능성은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이며, 더 나은 것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가진 최선의 해답이다.

(창조과학회 제공)





## 열바의 다이제스트

### 파키스탄, '대홍수' 후 전염병 퍼져

유례없는 여름철 폭우로 최악의 홍수피해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설사, 피부병 등 질병이 퍼지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처음에는 홍수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환자들을 주로 진료했지만, 지금은 피해지역에서 설사, 피부병 등 수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파키스탄 당국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시작한 상태다. WHO는 급성 설사, 콜레라, 기타 전염성 질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건시설에도 의약품과 관련 보급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인성 질병은 현재 파키스탄 전역의 홍수피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상황이다. 이번 대홍수는 물론 우기에 기후온난화 영향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이상 기상 현상에 따른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호우성 강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 기온이 1도 오르면 공기 중 수증기가 약 7%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中, 코로나 봉쇄로 결혼임신 급감...인구 감소 시작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적 불안감과 강력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중국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인구학자들이 중국의 인구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유엔에서도 내년 중국 인구가 감소해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질 것이며 2100년에는 중국 인구가 7억71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의 전망은 2021년 중국 여성의 자녀 출산이 1.16명인 것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중국 여성 1인당 출산 수는 2020년 일본 1.34명보다 적은 1.30명으로 줄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현재 3명까지 출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오래도록 지속한 한 자녀 정책에 따라 현재 가임 여성 수가 부족한 상태다. 결혼율도 줄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정부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가장 적은 760만 건을 기록했다. 해안 도시 닝보의 경우 올 상반기 출산율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나 줄었으며 중국 동부 덩저우시는 신생아 수가 9% 줄었다. 두 도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시행된 곳이다.

### 콩고민주공화국 기독교인, 이슬람극단주의자 공격당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연속적인 공격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최소 기독교인 17명이 사망하였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지난 7월 24일 첫 번째 공격으로 성공회 목회자 2명이 희생됐다. 다음 날, 교회 두 곳이 공격을 당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교인 7명이 사망한 이 공격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보고 지역에서 발생했다. 보고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슬람국가 소속 무장단체인 민주연합군이 지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CT는 전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이지만 북동부 지역은 지하디스트의 폭력에 점점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오픈도어는 “당국이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 北, 설탕값 5년 만에 폭등... 무슨 일?

북한의 설탕 가격은 지난 2017년 1kg당 평균 5201원(이하 북한 원화 기준)에서 올해 6월 말 4만3천원으로 8.3배 뛰었다. 같은 기간 밀가루도 1kg당 5029원에서 1만8700원으로 3.7배 상승했다. 설탕과 밀가루는 북한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식료품들이다. 한국은 행이 발간한 ‘최근 5년의 북한 경제 및 향후전망’ 보고서는 이 기간 북한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음을 밝혔다. 위기의 발단은 대북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다. 2019년

0.4% 성장한 북한 경제는 2020년과 2021년 다시 -4.5%, -0.1% 역성장했다.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한국원화 기준)은 지난해 35조9천억원으로, 한국(2071조7천억원)의 58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의 지난해 대외 교역액은 7억1천만달러로 195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설탕, 밀가루 같은 수입품 가격이 치솟은 것도 이 시기다. 북한은 현재 난국 돌파를 위해 경제체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생산성의 뒷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하다.

## ‘인구절벽’에 아이 보낼 유치원 사라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조사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은 8562개원으로 지난해보다 98개원 감소했다. 188개원이 문을 닫고, 90개원이 신설됐다. 문 닫은 188개원 중 154개원(81.9%)가 사립이다. 반면 신설 90개원 중 89개원은 국·공립이었다. 원생 수가 줄어들면서 유치원에 영향이 크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87만 9768명으로 지난해 595만 7118명 대비 7만 7350명 감소했다. 유치원은 55만 2812명으로 지난해

보다 2만 9760명이 줄어들었다. 유치원생의 감소율이 5.1%로 가장 컸다. 초등학교의 감소율은 0.3%, 중학생 0.2%, 고등학생 2.9%이다. 반면 기타 학교는 0.8%가 증가했다. 교육기관과 학생 수의 감소는 저출생이 주원인으로 지난 1986년 1031만 8천 명에 달했던 학생 수는 1990년에 1천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약 30년 만에 절반 수준인 5백만 명대로 감소했다. 가장 어린 연령대가 다니는 유치원이 인구절벽 문제에 직격타를 받은 형세다.

##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내년부터 면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세를 면제 항목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중성화 수술·병리검사 등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내년부터 진찰료·입원비도 면제 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비용의 부가세 면세를 위해선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가 우선이다.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명칭이나 진료 절차 등이 달라 진료비에 차이가 있다. 우선 올해 안에 외이염·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2024년까지 100개 항목의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엑스레이 검사나 전혈구 검사·판독 등 중요 진료비는 동물병원 안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술 예상 비용은 사전 설명을 의무화한다.

## 빅데이터로 본 서울 1인 가구 생활

서울시는 지난 3~5월 SK텔레콤, 시립대와 협력해 1인 가구를 포함한 300만 명의 가명 데이터를 분석한 ‘서울시민생활데이터’ 결과를 발표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2030세대 1인 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광진구 화양동, 강남구 역삼1동 등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중장년층은 저층 주거지, 60대 이상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았다. 1인 가구는 배달서비스의

경우 25~34세의 경우 월평균 접속 건수가 약 15~17건에 달했으나 60~69세는 약 7건 정도였다. 저소득 구간에 속하는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휴일 이동 거리, 전화통화 하는 사람의 수, 휴일 외출 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적어 사회적 접촉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실질적인 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월 단위로 갱신된 데이터를 올릴 예정이다.

###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 독감의 계절, 백신으로 예방

코로나19와 가을로 접어들며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의 유행과 맞물린 '트윈데믹'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며 비대면 활동으로 2020년과 지난해 가을, 겨울에는 계절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에 국민의 면역력이 낮아진 데다,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으므로 동절기 독감이 우려되고 있다.

## 코로나19와 유사한 질병들

### ■독감

코로나와 독감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계절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호흡기 질환이다.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질환은 같지 않다.

우선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사람들 사이에 퍼질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되고 코로나19는 'SARS-CoV-2'에 의해 발생한다.

전과 경로도 유사하다. 재채기나 기침, 대화 등을 할 때 코와 입에서 나오는 비말(작은 입자)에 의해 전파되며 근거리에서 있는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염된 사람들은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모두 전파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증상이 독감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독감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감염 후 1~4일 후에 증상이 발현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14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의 독특한 징후 중 하나로 꼽히는 '후각 또는 미각 상실'도 독감과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이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증상 때문에 코로나19 또는 독감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는 것이다.

### ■감기와 알레르기

알레르기는 병원균이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알레르기는 면역체계의 과잉반응을 유발하고 몸 전체가 그에 따라 반응한다. 기침, 재채기, 가려운 눈, 콧물은 모두 매우 흔한 알레르기 증상이다. 콧물과 재채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전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레르기 증상은 애원동물이나 나무, 풀, 꽃가루,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면서 면역체계의 과잉반응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 노출되지 않을 때 멈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천식이 없는 한 알레르기는 호흡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항히스타민제, 충혈 완화제, 비강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알레르기는 독감이나 코로나19가 아닌 일반적인 감기와 더 많은 유사점이 있다. 천식이나 다른 호흡 상태가 아니라면 단순한 알레르기는 코로나19나 독감과 혼동될 가능성은 없다.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감기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다만, 감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편이며 대표적으로 콧물, 기침, 코막힘, 인후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나 독감에서 관찰되는 통증과 발열 증상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 트윈데믹 대비 독감예방 백신접종하기

독감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달라 매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된다. 또한 올해에는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고 6개월 정도 면역 효과가 유지된다. 독감이 본격 유행하기 전 9월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늦어도 11월까지 접종하는 것이 좋다.

독감백신은 3가, 4가가 있는데 '3가'와 '4가'는 바로 예방할 수 있는 독감 종류의 가짓수를 말한다.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는 A형 독감 바이러스 2종, B형 독감 바이러스 2종이 있다. 4가지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4가 백신'이고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3가 백신'이다. B형 독감의 경우는 보통 3~4월에 유행을 하는데 대개 2가지 종류 1가지 종이 유행을 한다. 기저질환이 없고 평소 건강 한 분들은 3가 백신을 맞아도 무방하나 본인이 면역력이 평소에 약한 편이거나, 독감 합병증 고위험군(65세 이상/임산부/5세미만 어린이/만성 폐질환자/당뇨/암 등)인 경우 4가 백신을 접종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무료 독감 접종의 경우, 오는 21일(수)부터 어린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걸릴 수 있나?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되면 사망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인이거나 당뇨병·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 동시 감염되면 치명적이므로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독감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나?

독감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감백신이 코로나19 중증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됐다. 미국 마이애미 밀러 의대 교수팀은 최근 온라인에서 진행된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전염병 학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독감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독감백신 접종자보다 중환자실 입원 가능성이 최대 20% 정도 높았고, 응급실 방문 가능성은 최대 58%까지 더 높았다. 다만 사망 위험은 독감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았다.

### 독감백신의 예방력은?

40~60% 정도다. '절반 인파인데 굳이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걸리더라도 덜 앓고 넘길 수 있다.

### 독감예방접종, 알츠하이머 발병 낮춘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들은 아예 접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알츠하이머는 노년기 치매의 대표 원인 질환이다. 미국 맥케번의대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알츠하이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 독감백신을 맞은 그룹에서 알츠하이머 발생률은 5.1%, 맞지 않은 그룹은 8.5%로 나타났다. 명확한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 면역체계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쪽으로 활성화했으리라 추측했다.

◀ 코로나19와 감기, 독감, 천식, 알레르기 증상 비교 ▶

구분	코로나19	인후염	감기	독감	천식	계절 알레르기
발열	0	0		0		
기침	0		0	0	0	0
인후염	0	0	0	0		0
숨가쁨	0				0	
피로감	0		0	0	0	0
설사 및 구토	0	0		0		
콧물	0		0	0		0
몸살 및 근육통	0	0	0	0		

\*출처: CDC.gov/coronavirus, Comparing Cold, Flu, Allergies & COVID-19)

# 천국에서는 일도 없이 맨날 놀고 쉬기만 하는가?

‘기독교에 흥미가 생긴다. 맹목적인 믿음은 싫고, 하나씩 알아 가고 싶다.’ 천국에 대한 설교로 전도 메시지를 전한 성탄 주일에 젊은 비신자 부부가 이런 소감을 전하며 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다른 비신자 한 분은 메시지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싶었지만, 다 듣고 나서 딱 돌아서니 ‘진짜가? 진짜가 아니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 섞인 의심이 들어 이 의심을 풀려고 교회에 더 나와 보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를 경험하며, 나는 요즘 사람들에게도 성경적인 균형을 잡아 제대로만 전한다면 변증적인 천국 메시지가 통한다고 느꼈다.

요즘 교회 안팎의 사람들이 천국에 무관심해진 이유가 뭘까. 교회가 성경적인 천국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닐까. 많은 교회가 영원한 천국을 무심하게도 막연한 영적 황홀경이나 하나님 임재의 어떤 영적 상태쯤으로 언급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뤄질 정확한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대중적인 천국 간증집들과는 달리, <혜분>은 분명한 성경적 근거와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천국은 물리적인 시간공간과 문화, 문명을 가진 구체적인 나라라는 그림을 제시한다. 그래서 천국을 영적인 곳으로만 여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분법적인 천국관을 ‘기독교 플라톤주의’라고 비판하기까지 한다.

## ‘기독교 플라톤주의’를 넘어

아담은 원래 하나님에게 문화 명령을 받아 땅을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다(창 1:28). 첫 사람이 타락해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다시 통치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땅을 통치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엡 1:10)이다. ‘다’라는 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과거에 분리된 세계였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거처, 곧 천국과 땅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다. 부활의 몸을 입고 저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어 새 땅에 거하게 된 인간은 죄의 방해 없이 장대한 문화와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 영원한 천국의 일상에 대한 7문7답

### 성도들은 영원토록 어디서 어떻게 왕노릇 하는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나라들을 당신의 영원한 나라들로 부활시키신다. 성도는 어떤 무형의 하늘 세계가 아니라 땅 위에서 만국을 통치한다. 성도가 받을 면류관은 본래 통치의 상징이어서, 보상으로서의 면류관에 관한 모든 언급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을 가리킨다(눅 19:17; 고전 6:2).

### 천국에서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 땅에서 일한 데 대한 천국의 보상은 더 중요한 자리에서 맡을 더 많은 일이다. 천국에서도 옛 땅에서 시작했던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타락한 세상의 성품 때문에 생겼던 직종들, 곧 의사(쇠퇴), 경찰관(범죄), 장의사(죽음), 보험설계사(장애) 등은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우주는 어떤 곳이 되는가?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계 2:28). 새벽 별은 천상의 물체이며 금성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 하늘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성들과 별들을 맡기실 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 새 창조가 정말 옛 창조의 부활한 모습이라면, 결국 새 금성도 존재할 것이다. 땅과 함께 행성들과 우주 전체가 인간과 함께 타락하고 인간과 함께 부활한다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다른 부활한 행성들에 살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다.

### 천국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알고 배우겠는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엡 2:7).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죽으면 만물을 보다 더 분명하게 보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겠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 천국에도 시간이 있을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계 8:1). 천국에서 성도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계 7:15). 새 땅의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계 22:2). 한마디의 말, 한 사건은 이전의 말과 사건에 이어 나오며, 또한 다음의 말과 사건과 이어지는 연대기적 사건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 결혼생활이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이 없어지지 않았듯, 천국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부활의 핵심은 우리가 본래의 우리 몸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인간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데 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성의 한 단면이다.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가리키는 도로 표지판이다. 일단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표지판은 불필요해진다.

### 새 땅에서 성도들은 먹고 마실 것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요 21:4-14). 성경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눅 22:18).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사 25:6)라는 말씀으로 실제적인 잔치와 포도주에 대해 말한다.

###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의 예배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에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의 일상이 실제로 그러해서다. 그러한 일상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원한 찬양이 된다. 단순한 찬양만 찬양이 아니다. 온갖 종류의 일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상 생활은 영원한 천국 생활의 맛보기이거나 사전 예행연습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늘 기적적으로 베풀어주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로 각 직업의 영역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이웃 사랑의 관계 공동체로 세상의 구조를 기뻐하셨다.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천국에서 성도들이 일없이 그저 놀고 쉬기만 한다면 난센스다. 지금 이 땅에 이웃 사랑의 일이 없다면, 애초부터 천국에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여행이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영화, 테크놀로지가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애초부터 사람이 그러한 문화 활동을 좋아하고 추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미와 쾌락을 만드신 하나님을 직직히 종교적 이미지로만 그리려는 신자는 천국의 실상을 크게 오해했거나, 그 자신이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천국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루해서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기독교의 핵심질문에 26권의 변증서로 답하다  
(기독교 팩트체크)에서 발췌하였다.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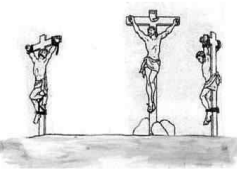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3		4		5		
					4			6	
2		2						5	7
				13		18			
16		11	12					8	
					14				
16		17					6		
						19		7	9
15					10		11		
			12				9		

가로문제

1. 나무나 꽃으로부터 이미 떨어진 잎
2. 여러 조각으로 아주 잘게 깨어진 상태
3.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하여 의견이나 입장을 밝혀 말하는 사람
4.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5. 민법에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받는 것
6.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
7.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움
8. 지표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엌에 떠 있는 현상
9.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10. 기술이 능숙한 기술자나 노동자

11. 소설, 연극, 영화 등에서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
12. 할인하거나 더하지 않고, 상품의 정해진 값대로 파는 제도
13. 성적을 기록한 표
14. 어른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귀여워해 주는 것을 믿고 버릇없이 구는 일
15. 제일 앞에 진을 친 부대를 지휘하는 장수
16.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결리로 승부를 겨루는 말

세로문제

1.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나 물체의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어 주는 우산 모양의 장치
2.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
3.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생긴 감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5.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대표성을 띤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
6. 남을 비방하거나, 남이 잘못되도록 저주하는 말
7. 웃거나 말을 할 때 볼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자국
8. 공장이나 공사장 같은 곳에서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
9. 산에 나무나 풀 따위가 없어 빈번한 산
10. 학교에서 배운 것의 복습과 예습 및 과외 학습을 목적으로 내 주는 과제
11.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힘
12. 사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소리나 기색
13. 목적하는 바를 이룸

14. 엉기거나 뭉쳐서 굳음
15. 자신의 출신 학교를 먼저 졸업한 사람
16. 호주머니에 넣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수건
17. 날마다 겪은 일이나 느낌 등을 적는 공책
18.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세운 돌
19. 서투르거나 어색한 데가 없이 훌륭하고 미끈하게 기다듬음

<지난 9월호 정답입니다>

입	추			별	목	공			
	천			태	초	천	리	안	
	서	점		평				하	
장		입	신	양	명		격	무	
뇌		가		절	충	안		인	
삼	매	경			전		온		
	운		독	학		소	용	돌	이
	탕	감		회	복		광		구
탈		별	천	지		통	로		동
퇴	임	사			벽	장		육	성

미로찾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제사장요한에게 오셨어요.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 순개강 축제 ■ 9월 4일 <말씀 암송>



계양목장



비전목장



기드온 청년



부개목장



서울목장



남동목장



이진/오정은 딸 이루아



삼산1목장-최효정자매



남동목장-고석기집사



## “하나님께 열심히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훈육하겠습니다”



박하영자매  
비전목장

처음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 걱정과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메달렸던 감사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물일곱에 별이를 낳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순한 별이와 나보다 육아를 더 잘하는 남편도 있었지만, 박하영의 삶에서 엄마 박하영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은 상상 이상의 희생이 따랐고 너무나도 큰 변화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때론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

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엄마 아빠가 받아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겁도 없이 웃으며 뛰어내리는 별이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겠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맡기길 원하시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위를 달라고 울며 떼쓰는 별이에게 이젠 너한테 위험한 거라서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초콜릿과 커피를 먹겠다고 우는 별이에게 이젠 너한테 인종은 거라고, 아직 네가 먹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가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초콜릿과 커피 도대체 언제 주실거냐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지금 나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려는 별이에게 바로 안아서 올려주지 않고 발 받침대를 대 주었

을 때 하나님도 나를 당장 안아서 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 내가 다리 힘을 기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잠잠히 발 받침대를 놓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별이를 알기 전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가?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별이를 죽게 만들 수 있는가? 생각만해도 눈물이 나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고 화를 내다가 그 방법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다고 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별이를 안고 나서야 비로소 그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드리고 별이를 드리

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레는 부모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녀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양육하며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린다는 고백입니다. 별이가 하나님의 딸로 자라길 바라는 만큼 먼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되겠습니다. 별이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에 따라 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별이 위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훈육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레라는 첫 단추를 끼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밤낮으로 별이를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이의 신앙으로 다시 고백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http://www.wwch.or.kr)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C3TV 인터넷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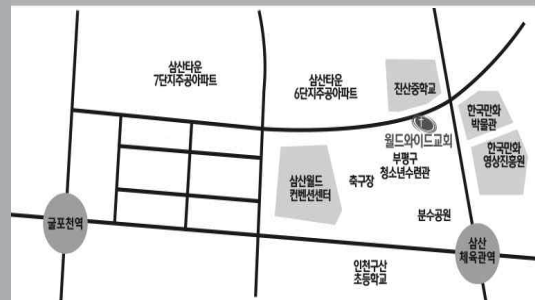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분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분당
주일	1부(축재예배)	오전 8:45	지하1층 분당
	2부(축재예배)	오전 11:15	지하1층 분당
	3부(청년예배)	오후 3:00	지하1층 분당
	4부(테마예배)	오후 5:00	지하1층 분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분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3:00	지하1층 분당
국제 지역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전화: 032)501-9686~7  
•Fax: 032)503-9686  
•http://www.ww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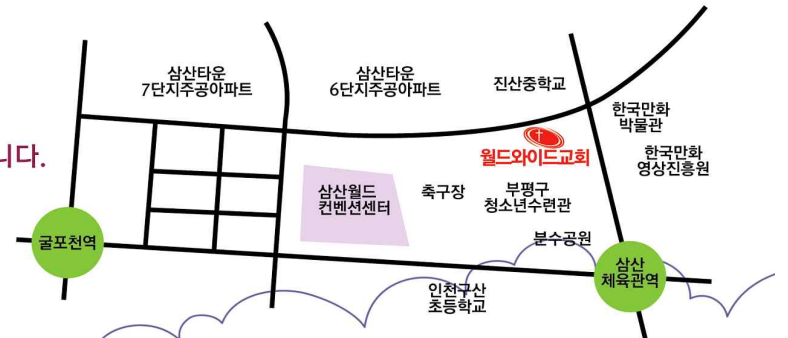


## 29기 행복발전소 월드와이드 문화아카데미

강좌일정 : 2022년 10월 15일(수) ~ 11월 24일(토) 최대 8주간 / 접수기간 : 2022년 9월 1일(목) ~ 10월 4일(화)

강의명	강사	강사소개	강의기간	요일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료 (8주 기준)	정원
스마트폰 100%활용	장선경 선생님	스마트폰 활용 SNS소통 전문강사	10월 5일 ~ 11월 2일 (5주 강좌)	수 / 오전 10~12시	3층 유년부실	1만원	10명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희순 선생님	홍대미대 졸업 명지대 미술치료전공	10월 6일 ~ 11월 24일 (8주 강좌)	목 / 오전 10~12시	2층 영아부실	1만원	10명
홈로 100세 살기	손향숙 선생님	전 YS휘트니스센터 강사 현 휘트니스GX강사 (태보, 근력, 춤바댄스)	10월 7일 ~ 11월 11일 (6주 강좌)	금 / 오후 1:30~2:30	2층 영아부실	1만원	6명
카페바리스타 입문	최경순 선생님	월드와이드스테이션 카페바리스타	10월 8일 ~ 10월 29일 (4주 강좌)	토 / 오전 10:30~12시	1층 카페	1만원	10명

- 수업의 집중을 위해 최소 실비를 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지원합니다.
- 문의: 월드와이드교회 (032) 501-9686~7
- 담당자: 최성훈 목사 010-4526-4065
- 모든 강좌는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됩니다.
- 월드와이드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소속의 건전한 교회입니다.



2022 가을 블레싱 전도축제

온가족 천국백성  
만들기

Enter

구원을 위한 위대한 클릭!

10.23(주일) 오전 11:00 교회학교 이벤트 데이

11.13(주일) 1부:오전 9:00 / 2부:오전 11:30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